

碩士學位 請求論文

教育費 推移와 柑橘所得과의 關係考察

指導教授 李 杺 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金 龍 熙

1998年 8月

教育費 推移와 柑橘所得과의 關係考察

指導教授 李 杭 柱

이 論文을 教育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金 龍 熙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 抄錄 >

教育費 推移와 柑橘所得과의 關係考察

金 龍 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指導教授 李 杙 柱

본 연구는 '柑橘産業 所得이 教育費 지출에 얼마만한 影響을 미쳤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柑橘産業의 발달 과정과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지출 推移를 파악한 후 두 변인간의 關係를 실증적으로 검증·규명하여 앞으로 이런 類形의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제시에 그 意義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물을 재분석하는 문헌종합검토법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모든 금액은 불변가격을 기준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상호관련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學校級別間的 공·사교육비 변화는 1968년부터 1990년 사이에 투자된 실질 금액상으로는 상위급단계의 학교로 올라갈수록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 증가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초등교육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위급단계의 학교보다 하위급단계 학교에 대해 더 많이 투자·지출되

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감귤산업의 성장도는 1968년을 기준으로 1995년과 대비하여 보면, 재배농가는 약 60배, 재배 면적은 약 14배, 생산량은 약 180배, 조수익은 약 5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역총생산 구조면에서는 1971년에 4.5%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는 18.2%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 기간내의 연평균치도 13.9%로 지역내 총생산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차산업 생산액 중 52.4%에 해당한다 이는 단일 품H의 산업으로는 매우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감귤과 관련된 製造 및 流通業까지의 생산액을 計上한다면 감귤산업은 제주 경제와 산업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제주도 學父母들이 負擔하는 教育費 推移 規模는 1990년인 경우에 1,930.05억원으로 推論되고 있어 이는 지역내 총생산액의 약 11%, 감귤 조수익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타 시도에 진학하는 학생 및 재수생까지 포함하여 교육비를 추론한다면 감귤 조수익을 훨씬 넘는 액수가 교육비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육비 지출과 감귤산업의 소득과의 상호관련성을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의 공교육비와 중학교의 사교육비인 경우만 95% 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99%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귤산업 소득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지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目次

I. 緒論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研究의 內容	3
3. 研究의 制限點	3
II. 教育費와 柑橘産業	4
1. 教育費	4
2. 教育變化 推移	13
3. 柑橘産業 성장과 家計費 支出 推移	15
III. 學父母 負擔 教育費 推移	26
1. 公教育비	27
2. 私教育비	31
3. 제주도의 총교육비	35
IV. 연구 방법	36
1. 접근방법	36
2. 교육비 산출 방식	37
3. 통계처리	38
V. 教育費 支出과 柑橘産業 所得과의 關係	39
1. 교육비와 감귤소득	39
2. 교육비 지출과 감귤소득과의 관계	44
VI. 要約 및 結論	46
1. 要約	46
2. 結論	50
※ 參考文獻	51
<Abstract>	53

※ 부 록

表 目 次

< 표 II - 1 > 교육수준별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	5
< 표 II - 2 > 년도별·학력별 상대임금율의 변화	5
< 표 II - 3 > 학력별 상대임금	6
< 표 II - 4 > 교육규모 변화(학생수)	13
< 표 II - 5 > 제주도 교육재정 규모	14
< 표 II - 6 > 지역 총생산 구조	16
< 표 II - 7 > 연도별 감귤 생산 추세	17
< 표 II - 8 > 취업자 구조	18
< 표 II - 9 > 전국 주요 과실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성비	19
< 표 II - 10 > 재배 면적 단위당 생산량	20
< 표 II - 11 > 주요 과실의 조수입 추이	20
< 표 II - 12 > 산업별 취업자 구조	21
< 표 II - 13 >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구조 구성비	22
< 표 II - 14 > 가계지출 중 교육비 지출율	24
< 표 II - 15 > 학생 1인당 학교급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24
< 표 II - 16 > 학생 1인당 학교급별 내역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25
< 표 II - 17 > 교육비 부담요인	25
< 표 III - 1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28
< 표 III - 2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지수	28
< 표 III - 3 > 시기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지수	29
< 표 III - 4 > 제주도의 총공교육비(추이) 규모	30
< 표 III - 5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변화 추세	32
< 표 III - 6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지수	33
< 표 III - 7 > 시기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지수	33
< 표 III - 8 > 제주도의 총사교육비(추이) 규모	34
< 표 III - 9 > 제주도의 총교육경비	35
< 표 IV - 1 > 교육비 지출율	37
< 표 V - 1 > 교육비와 감귤소득	39
< 표 V - 2 > 시기별 교육비와 감귤소득의 증가지수	42
< 표 V - 3 > 전국 평균 교육비 증가 비교	44
< 표 V - 4 > 감귤산업의 성장도와 총교육비와의 상관관계	45

圖 日 次

<그림 V - 1 > 공교육비와 감귤소득	41
<그림 V - 2 > 사교육비와 감귤소득	42
<그림 V - 3 > 총교육경비와 감귤소득	44



I. 緒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제주지역의 경제는 육지와는 달리 원시적 방법에 의한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산업 형태는 농·어업인 1차 산업이 위주였으며 경제성보다는 자급자족을 위한 원시농업 형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연히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런 환경속의 제주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서 임금이 높고 안정된 직업을 택하여 劣惡한 농촌 생활에서의 탈피를 희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교육비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극소수의 부농들은 이미 갖고 있는 밭이나 가축 등을 팔아 교육비를 충당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교육비 마련에 안간힘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연적으로 경제적 수익성이 높은 작물의 재배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그런 가운데서 이미 식재되어 있는 재래종인 온주밀감 나무에서 그 수익성이 엿보이기 시작하자 60년대 이전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감귤나무를 심고 그 수확을 올리는 자발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감귤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 영향으로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급격한 발전을 하게되었다.

그 당시 감귤나무의 소득성을 살펴보면 1975년을 기준으로 온주밀감 관(3.75kg)당 평균 가격이 1000원에 거래될 정도여서 당시 공무원 평균 월급이 1만원 대와 비교해 볼 때 온주밀감나무 10그루에서 얻는 조수익이 공무원의 평균 연봉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온주밀감나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음에 틀림없었다.

이런 온주밀감나무를 '대학나무'라 불려지게 된 것도 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특히 농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밀감

나무의 高所得性을 교육비 지출과 연계하여, '밀감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자녀들의 교육비는 걱정없이 대학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뜻에서 비유된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제주의 온주밀감나무 재배를 중심으로한 제주 감귤산업이 교육열에 불타는 제주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적 측면 즉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감귤나무를 '대학나무'라 불릴만큼 교육비 부담과 감귤소득과의 두 변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물들을 살펴본 결과 본 논문과 유사한 논문으로 김남진의 「경제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에 관한 연구」¹⁾가 있으나 여기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교육비의 변화 추세를 비교·분석하는 내용이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사교육비의 실태와 교육재정에 관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감귤산업의 성장에 관하여는 위미리를 중심으로한 김준희의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²⁾란 논문을 들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감귤 재배지의 계층 구성의 실태와 그 요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임노동의 성격을 총원 경로와 고용 형태에 의해 설명하고 감귤산업과 농촌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었다.

60년대말부터 오늘날까지도 제주지역경제와 자녀 교육비 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과 감귤소득을 변인으로 한 지방의 특정산업과 교육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研究의 H的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추론하여 감귤소득과의 관계를 분석·고찰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검증하여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類形의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시에 그 意義를 두고자 한다.

1)김남진(1995), “경제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2.

2)김준희(1983),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pp.1~43.

2. 研究의 내용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제주지역의 특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감귤산업의 소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추이를 파악·분석한 후 그 관계를 규명하여 감귤산업의 성장이 제주도민들의 교육비 지출에 기여한 정도를 알아보려는데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지역경제에서의 감귤산업의 성장도를 파악한다.
- 2) 제주도의 공교육비 규모 推移를 분석한다.
- 3) 제주도의 사교육비 규모 推移를 분석한다.
- 4) 감귤산업의 성장과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3.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감귤산업 소득만으로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감귤산업 소득과 교육비 부담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출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산업의 발달에 따른 감귤소득이 자녀들의 교육비에 투자된 관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시켰으며 경제 외적인 측면 즉 문화적·사회적·심리적인 측면은 배제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감귤산업의 소득이 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정도의 유추 해석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 외에 다른 산업에 일반화 시키기는 곤란하다.

또한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총교육비 산출도 전국 교육비의 平均値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한 실질적 총교육경비 규모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단지 학부모들이 부담한 총교육경비 규모의 推移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限界點을 갖고있다.

II. 教育費와 柑橘産業

1. 教育費

교육과 경제 발전 또는 교육과 소득 등의 경제 성장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교육과 경제 발전의 관계로서 여기에 대한 관점은 크게 교육과 경제 성장과는 교육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설과 반대로 교육은 단지 직종에 알맞은 노동자를 선별하는 기준이며 그 결과 경제가 발전한다는 두 가지 측면의 理論³⁾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슉츠(Theodore W. Schultz)는 교육비란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이지 결코 소비가 아니다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發展經濟論者들⁵⁾은 교육과 성장에 대하여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와 많은 보수에 접근하기 쉽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 수준과 지위·보수 사이의 그러한 관련성이 근대적인 직업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과 경제 발전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은 결과적으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지위·보수와 관련이 있으며, 생산성이 높고 낮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들의 선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 수준별 취업상황과 임금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II - 1 >은 교육 수준별 취업자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1960년을 기준으로 1980년을 대비하여 보면 중졸이하 취업자는 83%에서 52%로 감소한 반면 중졸은 8.9%에서 21.0%, 고졸은 7.5%에서 20.0%, 고졸 이상은 0.9%에서 7%로 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취업자의 교육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

3) 金永哲·孔銀培(1988), 「교육경제와 재정」, (서울:교학사), p.6.

4) Theodore W. Schultz,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March 1961), pp.1~17, 金永哲·孔銀培, 교육경제와 재정(서울:교학사,1988),p.7에서 재인용.

5) 상계서, p.12.

음을 알 수 있다.

< 표 II - 1 > 교육수준별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

(단위 : %)

연도	중졸이하	중졸	고졸	고졸이상
1960	82.69	8.89	7.48	0.94
1966	74.12	9.53	13.57	2.78
1970	66.22	16.14	14.32	3.32
1975	62.06	18.06	13.35	6.53
1980	52.00	21.00	20.00	7.00

자료출처 : 김영철·공은배편(1988), 교육경제와 재정, 교학사, p.108.

이를 알기쉽게 1960년의 취업자 구성비를 1로 한 지수로 계산하여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0.63, 중졸은 2.36, 고졸은 2.67, 대졸이상은 7.45로 고학력 소지자가 취업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 - 2 >는 학력별 임금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1971년을 기준으로 고졸은 1.14에서 1984년에 0.97로 0.17포인트 낮아지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은 2.16에서 2.21로 0.05포인트 향상되었으며, 조사 기간내의 평균 임금율도 중졸이하는 0.64, 고졸은 1.05, 대졸이상은 2.02로 고학력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임금이 1971년에 23,704원에서 1984년에 294,980원으로 10배 이상 오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졸 및 고졸 임금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대졸 이상 임금은 높게 나타나 상대 임금을 폭이 벌어지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 표 II - 2 > 년도별·학력별 상대임금율의 변화

연도	평균임금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971	23,704	0.80	1.14	2.16
1975	46,654	0.69	1.20	2.57
1980	173,150	0.72	1.04	2.39
1981	209,641	0.72	1.04	2.34
1982	244,819	0.71	1.02	2.26
1983	271,178	0.71	0.99	2.23
1984	294,980	0.73	0.97	2.21

자료출처 : 김영철·공은배 편(1988), 교육경제와 재정, 교학사,p.101.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학력별 상대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 표 II-3 >

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에 중졸이하의 임금이 12.4만원, 고졸이하가 18.1만원, 초대졸이 26.5만원, 대졸 이상이 41.3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인 경우는 중졸이하의 임금이 95.9만원, 고졸이하가 101만원, 초대졸이 119.3만원, 대졸 이상이 171.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졸 임금을 1로 하였을때의 지수로 비교하여 보면, 1980년에는 고졸보다 대졸 이상이 2.29배, 초대졸은 1.46배, 중졸은 0.69배로 대졸은 중졸보다 약 3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1995년에는 고졸보다 대졸 이상이 1.56배, 초대졸은 1.08배, 중졸은 0.87배로 대졸은 중졸보다 약 2배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80년의 약 3배에 비하면 1배 정도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대 임금을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줄어드는 폭의 비율이 느린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표 II - 3 〉 학력별 상대임금 (단위 : 만원)

연 도	중졸이하	고졸이하	초대졸	대졸이상
1980	12.4 (0.69)	18.1 (1)	26.5 (1.46)	41.3 (2.29)
1985	22.6 (0.75)	30.3 (1)	39.3 (1.30)	68.6 (2.22)
1990	47.7 (0.84)	56.9 (1)	66.8 (1.17)	105.6 (1.86)
1995	95.9 (0.87)	110.0 (1)	119.3 (1.08)	171.5 (1.56)

자료출처 :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남형문화주식회사, p.238에서 발췌.
()안은 고졸 임금을 1로 하였을 때의 학력별 상대 임금의 지수임.

다음은 공교육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의 문교예산 규모를 GNP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70년에 2.9%에서 1985년에는 3.5%, 1994년에는 4.45%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대비도 같은 1970년과 1985년에 각각 17.6%에서 20.3%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경제 성장에 따라 교육비의 일부인 공교육비 부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남진은 「경제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에 관한 연구」⁶⁾에서 중앙정부의 교육 예산에 지방 정부의 교육비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순계 규모의 교육 예산은 1994년에 12조 8,850억원으로 GNP의 4.45%에 달하며, 1990년의 경우 공·사교육비까지 포함시킨 총교육비는 정부 예산의 92% 수준에 해당하는 규

6)김남진(1995), 전계서, p.25.

모로서 GNP의 12.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는 점을 선행연구물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교육은 질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며, 고학력 소지자 일수록 취업률 및 임금에 있어서 저학력 소유자 보다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교육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국가에서 교육 예산을 매년 증대하여 편성하고 있음을 볼 때 발전경제론자들의 理論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에 충당되는 교육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教育費란 사전적 의미로는 “교육에 드는 비용”⁷⁾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교육학용어사전」에서는 “교육비란 일반적으로 교육경비라고 하며 교육에 관한 제 활동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자나 개인이 교육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총칭하는 것”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5조를 살펴보면 ‘教育·學藝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特別賦課金·手數料·使用料 기타 教育·學藝에 관한 財産收入, 地方教育財政交付金, 地方教育讓與金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轉入金 기타 教育·學藝에 속하는 收入으로 충당한다’로 되어 있어 교육재정과 교육비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비를 ‘教育·學藝에 관한 경비’⁹⁾로 규정하고 있다.

이군현은 「교육행정학」에서 교육비를 보다 광의로 해석하여 교육부 산하의 각급학교는 물론 교육부 이외의 타 부처 산하 교육기관 및 공무원 교육원, 일반 기업체가 설치하고 있는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을 비롯하여 사설학원 등에서 지출하는 경비까지 포함되나, 편의상 교육부 산하의 각 기관이 지출하는 경비만을 교육비로 보고 그 이외의 기관에서 지출하는 경비는 제외시키고 있다¹⁰⁾라고 하여 교육부 산하의 교육부분 예산만을 교육비로 보고 있다.

한편 윤정일은 「교육재정론」에서 교육비 내지 교육경비라고 하면 일반적

7) 신기철·신용철편(1975),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삼성출판사), p.354.

8) 서울대사범대학교육연구소편(198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배영사), p.83.

9) 교육법전편찬회(1998), 「교육법전」, (서울:교학사), p.69.

10) 이군현(1992), 「교육행정학」, (서울:과학과 예술), p.519.

으로 국가 즉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교육자치 단체(교육청), 각급학교, 각종 사회단체, 독지가 및 학부모가 학교 교육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 대상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공적 또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사적으로 수입·조달하여 지출하게 되는 일체의 금액을 뜻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학교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적으로 경비를 조달하여 사용하게 되는 일체의 비용¹¹⁾이라고 교육비를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비의 개념은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비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교육비의 구성 및 분류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면, 콘(Elchanan)은 교육비를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로만 구분¹²⁾하고 있다.

윤정일은 「교육재정론」에서 교육비를 성격적 측면에서 실질비용과 기회비용,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명시적비용과 잠재적비용, 자본비용과 경상비용, 단기비용과 장기비용으로 등으로二分法的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비의 구성 요소를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慣例에 따라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두 영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총교육비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하는 교육비와 교육기회 경비를 합제한 총액으로 정의¹³⁾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하는 교육비는 회계절차상의 내용과 교육비 부담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공·사교육비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운영형태, 財源調達者, 그리고 교육목적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¹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형태에 따라 즉 회계절차에 따른 구분으로는 公教育費와 私教育費로 분류할 수 있다. 公教育費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부담하는 모든 교육비 즉 교육 부담자에 따라 분류한 公負擔教育費와 학부모가 부

11)윤정일의(1995), 「교육재정론」, (서울:도서출판 하우),p.244.

12)Elchanan Cohn, *The Economics of Education* (Cambridge, Mass:Ballinger Publing Company,1975),p.77.윤정일(1992),교육재정학(서울:세영사),p.365에서 재인용.

13)윤정일의(1995), 전계서, pp.91~98.

14)김영철·최희선(1983), 「교육행정·교육재정」, 신교육학연수업서 7권,(서울:갑을출판사), p.251~253.

담하는 교육경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등의 예산회계 절차를 거치는 교육경비를 말하며, 私教育費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즉 私負擔教育費 중 公教育費로 분류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이외에 자녀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출되는 모든 경비로서 教材代, 도서 구입 비용인 副教材代, 學用品費, 課外活動費, 學校指定用品費, 현장견학, 수학여행,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지출되는 단체활동비, 통학을 위한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졸업비, 위문금 등이 포함되며 그외의 자녀 교육활동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

둘째, 교육경비의 부담자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公負擔教育費와 私負擔教育費로 나눌 수 있으며 公負擔教育費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의 공공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교육비로 합리적인 공공단체의 예산회계를 거쳐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公教育費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제외한 액수를 의미한다. 한편 私負擔教育費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로써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등과 같이 학부모가 부담은 하지만 예산회계 절차를 거쳐 사용되는 공교육비와 교육활동에 투입은 되지만 예산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私教育費를 포함한다.

셋째, 교육목적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면, 교육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支辨되는 모든 公·私教育費인 직접교육비와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교육기간 중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실된 소득을 의미하는 간접교육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윤정일은 간접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잠재비용 또는 기회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포기소득, 비영리기관으로서 학교에 대한 조세 감면, 건물시설의 잠재적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로 정의¹⁵⁾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기회교육비 즉 간접교육비를 세분화하여 개인적 손실을 의미하는 사적 기회교육비와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교육기관, 교직원, 학생에게 조세의 감면과 더불어 금전적·비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사회적 수익 감소분인 공적 기회교육비¹⁶⁾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기회

15)윤정일의(1995), 전계서,p.96.

16) 상계서, p.246.

교육비를 기회경비 또는 교육의 기회비용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분은 앞에서 살펴본 교육목적에서의 분류와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간접비용과 직접비용에 대한 학문적 분류체계가 통일되어야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교육비 개념을 정의하면, 교육비는 넓은 의미에서의 教育經費의 준말로써 통상적으로 교육활동에 투자되는 모든 경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부 산하의 각 기관 또는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의 설립자나 개인이 교육을 영위하기 위하여 支辨되는 모든 비용이라 정의하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한다.

공교육비란 합법적인 공공단체의 예산회계에 편성되어 사용되어지는 교육비로서 성질별로 보면 교육부,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행정비와 교비, 실험실습비, 기성(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학생자율적 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경비¹⁷⁾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담 주체별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부담교육비와 학부모부담교육비 중 공식적인 예산회계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 교육비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사교육비란 본인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공교육비를 제외한 경비 즉 본인이나 자녀가 교육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중 공교육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서 이들 항목별 내용¹⁸⁾은 다음과 같다.

- ①교재대 : 정규 교과서 대금.
- ②부교재대 : 교재대 이외의 도서 구입비로서 사전, 전과, 수련장, 참고서, 문제지, 학생용 잡지, 독서용 도서, 테이프 등의 구입비.
- ③학용품비 : 공책, 연필, 계산기, 제도기, 미술 도구, 실험실습 재료 등의 구입비.
- ④학교지정용품비 : 책가방, 교복, 체육복, 교련복, 실내화, 구급낭, 명찰 등의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용품 등의 구입비.

17)윤정일(1989), 전계서, p.4.

18)김영철·공은배·이윤식(1982), “교육투자규모와 적정단위 교육비수준”, (서울:한국교육개발원), p.4~7.

⑤과외(학원강습)비 : 가정에서의 개인·그룹 과외비, 학원 과외비, 보충수업비 등.

⑥단체(청소년)활동비 : 소풍, 수학여행, 현장 견학학습, 야영활동, 국토순례 등에 필요한 경비.

⑦교통비 : 통학시 또는 그외 응원시 동원될 때의 차량비.

⑧급식비 : 학교에 내는 우유 급식, 학교 급식비.

⑨기부(회사)금 : 학교에 내는 잡비로서 운동회·학예회 등의 찬조금, 환경개선, 입학·졸업시 등의 찬조금, 육성(기성)회비,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의 찬조금, 기타 각종 성금에 드는 제 비용.

교육기회경비는 본 연구 주제 해결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은 생략한다.

교육비의 산출은 윤정일의 「한국의 교육재정」에 의하면, 각급 학교별 총교육비를 총학생수로 나누어서 산출될 수 있는데 다시 이를 세분하여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기회경비로 구분한다. 단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半日制이므로 이를 全日制 상당 학생수로 환산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며,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에도 FTE¹⁹⁾ 학생수로 환산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²⁰⁾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비의 산출은 공·사교육비와 교육기회경비를 산출한 후 그것의 총합을 총교육경비로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총교육경비의 산출은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교육비를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 또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분류될 수도 있고, 교육투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교육기회경비까지를 총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교육비의 개념에 맞게 단순히 교육비의 지출 경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교육에 지출된 실질적인 교육경비로 생각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추이만을

19)윤정일(1989), 전계서, (서울:민문고),p.19

*FTE (Number of Full - Time Equivalent Pupil Units)는 全日相當 學生數를 의미한다.

20) 상계서,p.37.

교육비로 추론하였으며 그 결과 산출된 공·사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총교육경비로 산출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공교육비의 산출은 공경제 활동을 통한 경비이므로 회계년도마다 예·결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윤정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교육비는 교비, 실험실습비, 기성(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학생자율적 경비만을 포함하지만 공교육비 총액을 산출할 때는 문교부,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의 행정비까지 포함하는 경향²¹⁾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 자료로는 전국인 경우는 문교통계연보를 들 수 있으며,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교육통계연보, 제주교육통계편람을 들 수 있다.

반면, 사교육비는 연구자의 성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조사·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기회경비를 포함한 총교육비 산출시 사교육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기회경비는 고등학교 이상의 경우에만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교육비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공경제 부분의 공교육비와 학부모 또는 피교육자 본인 스스로가 교육에 지출하는 모든 사교육비 그리고 교육기간 중 개인적·사회적·국가적으로 손실이 초래되는 경비인 기회경비까지를 총괄하여 총교육비라 한다. 그러나 교육비의 산출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는 관례적으로 공·사교육비의 두 영역으로 계산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는 타·시도 지역으로 진학할 경우와 농촌에서 제주시로 진학할 경우 유학기간 동안의 자취 및 하숙에 드는 비용 부담이 많은 것으로 면담 결과 나타나고 있어, 타·시도의 대학 진학자에 대한 교육비와 재수생에 대한 교육비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1) 상계서, p.5.

2. 教育變化 推移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孤島이기는 하나 옛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과 향학열이 높아 교육기관이 많이 건립되어 왔다. 그 예로 조선 말엽인 1907년에 官立濟州普通學校(제주북초등학교의 전신)와 중등 교육기관인 私立義信學校(제주농업고등학교의 전신)가 설립되어 제주 근대 교육의 嚆矢가 되었다.

학생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 표 II - 4 >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학생수는 일정 기간 증가하다 어느 시기를 정점으로 하여 학교 급별간에 따라 5~6년 간격을 두고 상위급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970년을 기준으로 1995년을 비교하여 보면 인구는 42.1% 증가한 반면, 초등학생수는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59.7%, 고등학교는 226.6%로 인구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학생인 경우는 제주대학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1970년에 593명에 불과하였으나 5년후인 1975년에는 1,141명으로 약 92%의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3,405명, 1985년에는 8,666명, 1990년에는 9,662명으로 1980년 이후에 급속한 학생수의 증가를 보였고 1995년에는 10,707명으로 1970년도 대비 약 20배 정도에 달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 표 II - 4 > 교육규모 변화(학생수)

연도	총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대학(교)	
	인구수	증가율	학생수	증가율	학생수	증가율	학생수	증가율	학생수	증가율
1970	365,522	1	64,201	1	18,078	1	8,069	1	593	1
1975	411,732	12.6	72,180	12.4	23,713	31.2	14,910	84.8	1,141	92.4
1980	462,755	26.6	76,179	18.7	33,128	83.3	24,265	200.7	3,405	474.2
1985	488,576	33.6	61,441	-4.3	37,774	109.0	30,179	274.0	8,666	1361.4
1990	514,605	40.8	56,033	-12.7	28,473	57.5	31,146	286.0	9,662	1529.3
1995	519,394	42.1	42,768	-33.4	28,876	59.7	26,356	226.6	10,707	1705.6

자료출처 : 제주도교육청(1995), 제주도교육통계편람, 태화인쇄사, p.30.

제주도청, 제주통계연보, 각연도.

* 대학은 제주대학학생수임.

* 증가율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교육재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대는 5·16후 빈곤의 역사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의 증대로 인하여 교육비의 수요를 억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정부 결산에 대한 문교부의 결산 통계를 비교해 보면 1964년인 경우 10.13%에 불과하였으며 문교예산에 대한 제주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정도의 극히 빈약한 상태였다.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 표 II - 5 >에서 살펴보면 1970년에는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이 17.5%인 반면 제주 교육재정은 12.8%로 재정 규모가 매우 소규모적이거나, 1975년에는 제주 교육재정이 14.9%로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14.4% 보다 높게 나타나 교육재정이 다소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0년에는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이 18.9%인 반면 제주 교육재정은 15.3%로 비율 차이가 3.6%로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으며 1985년에는 3.4%, 1990년에는 5.7%, 1995년에는 그 비율 차이가 무려 8.0%에 달해 제주 교육재정 규모가 점점 劣態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 - 5 > 제주도 교육재정 규모 (단위 : 십억원)

연 도	정부예산(A)	교육부예산(B)	제주교육재정(C)	A/B (%)	B/C (%)
1970	446	78	10	17.5	12.8
1975	1,587	228	34	14.4	14.9
1980	5,804	1,099	168	18.9	15.3
1985	12,275	2,492	422	20.3	16.9
1990	22,689	5,062	842	22.3	16.6
1995	54,845	12,496	1,847	22.8	14.8

자료출처 :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남형문화주식회사, p.226에서 발췌.
제주도교육위원회(1995), 제주교육통계연보.

3. 柑橘産業 성장과 家計費 支出 推移

감귤산업은 제주지역경제와 산업 그리고 청과물의 위치에서 그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경제는 산업별 취업자 구조와 부가가치 생산구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감귤산업의 발달

제주도 柑橘栽培는 대부분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지역에 集約되고 있는데 이는 아열대성 작물이라는 특성에 따른 기후적·입지적 조건 때문이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재배 기술의 향상과 農用水의 개발로 해안가를 제외한 제주도 全域에 걸쳐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민의耳目을 끌고 있는 黃金열매인 柑橘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시행된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재배 규모나 생산량이 지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의 산업형태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高度의 經濟作物일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도 중요시 되고 있다.

제주지역경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특화작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감귤은 지속적인 품종 개량 혹은 갱신과 함께 계획적 密植栽培 방법의 도입, 자금 지원 확대 및 외국산 감귤수입 규제 조치 등의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이면서 급격한 발달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감귤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배경을 허인옥은 「제주도 감귤업의 성장과 구조적 특질에 관한 고찰」에서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²²⁾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귤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競爭産地가 없다는 立地的條件과 둘째,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산 감귤의 수입을 강력히 억제하고 증산을 위해서 자금의 지원과 기술 보급 즉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힘입어 셋째, 1953년 후 다소 가격 파동이 있었으나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고 가격의 안정성 때문에 넷째, 이른바 재배의 大衆化를 이룩한 기술의 혁신 다섯째, 奉天水를 利用하게 되면서부터 産地를 더욱 확대케한 농

22)허인옥(1976), “제주도 감귤업의 성장과 구조적 특질에 관한 고찰”,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6집」, pp.73~86.

업용수의 개발을 들고 있다.

감귤산업의 발달을 우선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수익은 1968도에 8.51억원에서 1982년도에 1,241.89억원 1990년도에는 3,151억원 1995년도에는 4,334억원으로 소득이 향상되어 1968년도 대비 약 510배란 생각치도 못할 엄청난 숫자로 급성장을 가져왔으며 그에 따른 호당 수입도 1995년도에 1.6천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II - 6 >에서 제주도 경제의 총생산 구조를 살펴보면, 지역 총생산액 대비 1차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에 49.2%, 1976년에 50.1%, 1986년에는 49.0%로 1차산업이 제주 지역 총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로써 매우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낮은 1981년과 1990년 그리고 1995년에 각각 34.9%와 34.7% 그리고 33.1%로 총생산액의 1/3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감귤산업 소득이 제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1차산업 생산액과 대비하여 보면 1971년에 14억원으로 9.2%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76년에는 26.8%, 1981년과 1990년에는 48.6%와 52.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귤산업 소득을 지역총생산액과 비교하면 1971년에 4.5%에서 1976년에 13.4%, 1981년부터는 17.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차산업 생산액 비율이 낮은 1981년과 1990년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17.0%와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1년부터 1995년 사이의 연평균치가 13.9%를 나타내고 있다.

< 표 II - 6 > 지역 총생산 구조 (단위 : 억원)

연 도	지역총생산액(A)	1차산업생산액(B)	감귤총생산액(C)	A / B	A / C	B / C
1971	309	152	14	49.2	4.5	9.2
1976	1,198	600	161	50.1	13.4	26.8
1981	4,625	1,614	784	34.9	17.0	48.6
1986	8,252	4,044	1,416	49.0	17.2	35.0
1990	17,316	6,015	3,151	34.7	18.2	52.4
1995	36,309	12,018	4,800	33.1	13.2	39.9

자료출처 : 제주도청 지역경제과.

또한 戶當 소득은 1971년에 192.5만원에서 1995년에 1,630.2만원으로 약 8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감귤산업은 이처럼 단일 품목의 산업생산 구조로는 제주지역경제에 있어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산업적 측면에서 1차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 전체의 경우 급속한 성장을 하여왔으며, 특히 제주인 경우는 감귤을 중심으로 하는 作H構成의 변화에 힘입어 1981년~1986년 사이에는 농림·수산부분의 성장율이 15.4%에 달해 전국 평균 3.3%에 비해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였다.

그 변화 추이를 < 표 II - 7 >에서 살펴보면 우선 재배농가는 1968년도에 442호에서 1982년도 20,645호, 1990년도 25,616호, 1995년도에는 26,589호로 증가하여 1968년도 대비 약 60배가 증가함으로서 제주지역 농가의 64.3%, 제주지역 전가구의 18.8%가 감귤재배에 종사하는 등 제주경제의 주요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배 면적은 1968년도에 1,471ha에서 1982년도 15,500ha, 1990년도 19,414ha, 1995년도에는 21,605ha로 증가하여 1968년도 대비 약 14배가 증가하였으나 호당 경지면적은 1968년도에 3.3ha에서 1995년에는 0.8ha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량에 있어서는 1968년도에 3,349톤에서 1982년도에 323,420톤, 1990년도에는 492,700톤, 1995년도에는 614,770톤으로 증가하여 1968년도 대비 약 180배의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II - 7 > 연도별 감귤 생산 추세

연 도	재배농가(호)	면적(ha)	생산량(톤)	조수입(백만원)	호당소득(천원)
1968	442	1,471	3,349	851	1,925
1977	18,344	9,070	115,500	25,870	2,852
1982	20,645	15,500	323,420	100,903	4,887
1985	23,332	16,969	394,300	124,189	5,323
1990	25,616	19,414	492,700	315,100	12,301
1995	26,589	21,605	614,770	433,447	16,302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1996), 96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 분석, p17에서 발췌.

한국은행제주지점(1992),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분석, p24에서 발췌.

과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개년간은 오히려 사과 생산량보다 0.2%에서 최고 1.1%까지 앞지르는 증가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감귤이 우리나라의 과실 생산량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 - 9 > 전국 주요 과실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성비

(단위 : 천ha, 천M/T, %)

연도	구분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단감	감귤	기타	계
1970	면적	35.0	10.0	20.0	11.7	8.3	10.0	5.0	100.0
	생산량	50.1	8.0	18.4	12.3	7.1	1.2	2.8	100.0
1980	면적	46.5	8.1	10.1	9.1	3.0	12.1	11.1	100.0
	생산량	49.2	6.8	10.7	7.2	0.7	19.3	6.1	100.0
1985	면적	34.5	14.7	11.9	8.3	7.3	14.7	8.6	100.0
	생산량	36.4	10.2	9.0	8.7	4.4	25.3	6.0	100.0
1990	면적	36.7	12.5	10.2	7.0	7.0	14.8	11.8	100.0
	생산량	35.6	7.4	6.5	9.0	3.7	27.9	9.9	100.0
1991	면적	36.4	10.7	8.3	6.8	10.9	14.6	12.3	100.0
	생산량	30.7	8.4	6.9	9.4	6.2	31.5	6.9	100.0
1992	면적	35.9	10.1	7.2	7.0	11.9	15.2	12.7	100.0
	생산량	33.3	7.0	5.5	8.3	7.4	34.4	4.1	100.0
1993	면적	33.7	11.0	6.8	7.1	12.7	14.3	14.4	100.0
	생산량	32.1	8.5	6.4	8.4	6.1	32.3	6.2	100.0
1994	면적	32.3	12.2	6.3	7.8	13.9	13.8	13.7	100.0
	생산량	31.9	11.0	6.0	8.5	8.7	28.4	5.5	100.0
1995	면적	28.8	14.9	5.9	9.0	14.4	14.0	13.0	100.0
	생산량	31.1	13.8	5.6	7.8	8.5	26.7	6.5	100.0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1996), 96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 분석, p17.

한국은행제주지점(1992),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분석, p24에서 발췌.

< 표 II - 9 >를 준거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계산하면 < 표 II - 10 >와 같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제1의 과수라 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배 면적 단위당 생산량을 비교하여 보면 1970년에는 사과가 감귤의 약 14배 이상의 면적 단위당 생산량이 높았으나 1980년부터는 감귤이 사과를 능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부터1994년까지는 약 20배 이상의 높은 면적단위당생산량을 올리고

있어 토지 이용율면에서도 다른 청과의 재배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 - 10 > 재배 면적 단위당 생산량

연도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단감	감귤	기타
1970	1.4	0.8	0.9	1.1	0.9	0.1	0.6
1980	1.1	0.8	1.1	0.8	0.2	1.6	0.5
1985	1.1	0.7	0.8	1.0	0.6	1.7	0.7
1990	1.0	0.6	0.6	1.3	0.5	1.9	0.8
1991	0.8	0.8	0.8	1.4	0.6	2.2	0.6
1992	0.9	0.7	0.8	1.2	0.6	2.3	0.3
1993	1.0	0.8	0.9	1.2	0.5	2.3	0.4
1994	1.0	0.9	1.0	1.1	0.6	2.1	0.4
1995	1.1	0.9	0.9	0.9	0.6	1.9	0.5

한편 감귤의 소득적 측면을 다른 7종의 과일의 수익성을 < 표 II - 11 >에서 비교하여 보면, 단위 면적당 조수입인 경우 1981년, 1986년, 1990년의 경우 사과 및 배의 조수입 수준보다 낮았으나 1991년에는 10a 당 조수입이 2,238천원으로써 2,244천원인 배와 함께 가장 높은 조수입을 올려 제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영비를 차감한 순소득 면에서도 1990년에는 사과가 1,258천원으로 1,222원인 감귤보다 높았으나 1991년에는 감귤이 1,680천원으로 1,543천원인 사과보다도 높게 나타나 감귤이 우리 나라의 그 어느 7종 재배보다도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생산량이나 소득적 측면에서 제주 지역경제와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 - 11 > 주요 과실의 조수입 추이 (단위 : 천원)

연도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단감	감귤
1976	408	241	203	415	184	510
1981	750	715	576	972	439	703
1986	1,137	783	737	1,125	650	755
1990	1,857	1,376	1,158	1,770	1,200	1,632
1991	2,183	1,871	1,486	2,244	1,573	2,238

자료출처 : 한국은행 제주지점(1992),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분석, p24에서 발췌.

한편 도내 연간 곤판지 포장상자 수요량은 감귤이 4천만조, 감자와 당근이 1천만조 등 약 5천만조에 이른다. 생산에 있어서 도내의 자체생산 규모는 감협, 월자포장, 제주판지, 한라포장 등 4개 업체에서 연간 2천만조를 생산하고 있으나 나머지 3천만조 이상의 농산물 포장상자를 다른 지방에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유통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외에도 제주 지역산업에 미친 부수적인 영향으로는 농기구 및 농자재 및 생산된 감귤의 판매 등에 관계된 유통산업 기타 관광객 유치, 유희 노동력 활용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제주 地域經濟를 산업별 취업자 구조에서 살펴보면 < 표 II - 12 > 와 같다. 1995년인 경우 농·수산업 종사자는 31.5%,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63.4%를 나타내고 있어 제주지역의 산업별 취업자가 3차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산업별 취업자를 전국과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1971년에 전국이 48.2%, 제주가 81.4%로서 약 1.7배정도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1995년에는 전국이 12.5%이고 제주가 31.5%로 전국에 비해 약 2.5배 이상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추세가 전국적인 영향인데도 제주지역은 1차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II - 12 > 산업별 취업자 구조 (단위 : 인원수 천명)

연도	전산업취업자수		산업별구성비 (%)					
			농·수산업		광공업		SOC 및 서비스업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1971	9,946	159	48.2	81.4	14.2	3.0	37.6	15.6
1981	14,023	187	34.2	71.8	21.3	3.1	44.5	25.1
1991	18,576	243	16.7	37.5	26.9	4.1	56.4	58.4
1993	19,253	248	14.7	33.5	24.4	5.6	60.9	60.9
1995	20,377	257	12.5	31.5	23.6	5.1	63.4	63.4

자료출처 :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분석”, 한국은행 제주지점, 1992.

“1996년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1996.

반면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종사자는 1971년에 전국이 37.6%, 제주가 15.6%로서 전국의 약 45%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에 들어서 전국이 63.9%이고 제주가 63.4%로 전국과 동일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경제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에서 1971년에 81.4%에서 1995년에 31.5%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15.6%에서 63.4%로 약 4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마치 3차산업이 제주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제주지역 경제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구조의 특징적인 면을 < 표 II - 13 >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농림·수산업 부문의 생산 비중이 1971년에 49.3%에서 1993년에 31.5%로 감소되고 있으나, 그 비중에 있어 상대적 비중이 크기는 전국 평균 7.5%에 비해 4배를 넘는 규모이다. 다시말해서 1차산업인 경우 전국적으로는 27.7%에서 7.5%로 급격히 감소 추세인데 반하여 제주도는 49.3%에서 31.5%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감소율이 완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차산업인 경우는 1993년에 63.6%로 전국 평균의 68%에 못미치고 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국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상가격 기준 부가가치 생산 비중의 경우에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3차산업인 관광산업 부문의 발달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진 것은 경제성장의 단적인 비교 결과이며 또한 이러한 경제성장은 우리 나라의 자연스러운 경제성장의 한 모습일 뿐이다.

< 표 II - 13 >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구조 구성비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서비스업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1971	27.7	49.3	23.0	8.0	49.3	42.7
1981	16.1	34.9	32.2	5.3	51.6	59.8
1991	8.0	36.6	33.4	5.1	66.6	58.3
1993	7.5	31.5	32.0	4.9	68.0	63.6

자료출처 : 유영봉(1996), 지역산업구조의 성격과 변화, 제주리뷰 제2호, 제주대학교 지역사회 발전연구소, p.16에서 인용.

다음은 1차산업 분야를 몇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농가인구에 있어서 농가인구의 비중은 1971년에 68.9%에서 1990년에 31.9%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국의 44.7%에서 15.3%로 감소한 것에 비교하여 보면 감소 추세가 완만한 편이며 농가인구의 탈농화도 전국의 농가인구 비율 15.3%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아주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지면적에 있어서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구성 비율이 전국은 21.2%인 반면 제주 지역은 30.0%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당 경지면적도 전국은 1.19ha인 반면 제주 지역은 1.36ha로 전국의 1.14배에 해당하는 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셈이다. 또, 작목별 재배면적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71년에는 식량작물이 69.6%, 특용작물이 17.9%, 과실류가 8.2%, 채소류가 3.8%의 순이었으나 1990년에는 식량작물이 41.9%, 특용작물이 10.0%, 과실류가 28.4%, 채소류가 14.2%, 시설작물이 3.0%의 순으로 과실류가 급성장을 하였으며 식량작물은 약 2배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며 특히 채소류의 급성장 과 시설작물의 성장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과실류의 재배면적이 제주 총경지의 1/3에 가깝게 급성장한 것은 서귀포를 중심으로한 감귤재배가 이제는 道 全域에 걸쳐 재배되고 있음을 짐작케하고 있다.



2) 가계비 지출 추이

다음은 가정에서 여러 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 중 가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가계비 중에서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비 지출율을 < 표 II - 14 >에서 살펴보면 연평균 가계소비 지출 중 교육비는 도시가구와 농가 모두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1980년 이후의 농가의 부담이 도시가구를 능가하고 있다. 1995년 현재 도시가구는 연간 소비지출의 10.0%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농가는 10.5%로 도시가구보다 오히려 0.5%를 더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다.

< 표 II - 14 > 가계지출 중 교육비 지출율

(단위 : %)

연도	도시가구	농가
1970	7.6	6.8
1980	6.3	9.4
1990	8.4	10.5
1994	9.3	10.1
1995	10.0	10.5

자료출처:통계청(1997), 도표로 보는 통계, p.187.

학생 1인당 지출하는 학교급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 표 II - 15 >에
서 살펴보면, 제주도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와 재수생인 경우는 전국
평균의 0.5배나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당 지
출하는 월평균 교육비도 전국 평균의 1.3배에 해당하고 있다.

< 표 II - 15 > 학생 1인당 학교급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교육비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수생
전 국	127	75	66	106	148	366	213
제 주	167	80	73	93	147	455	349

자료출처:통계청(1997), 사회통계 조사 보고서,강문인쇄사, p.448.

이러한 월평균 교육비 지출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 표 II - 16 >과 같다.
전국적으로 교육비 내역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학교납입금과 학원과
외비가 학부모 부담 교육비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용돈과 교통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학비인 경우는 '군부'가
'시부'보다 2배 이상, 그리고 전국보다 5배 이상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잡
부금과 용돈·교통비도 '시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 표 II - 16 > 학생 1인당 학교급별 내역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학 교 납입금	학 원 과외비	개 인 과외비	교재비	유학비	잡부금	용 돈 교통비
전 국	65	67	13	22	15	10	39
시 부	67	75	15	23	12	11	40
군 부	55	37	4	19	26	9	36

자료출처:통계청(1997), 사회통계 조사 보고서,강문인쇄사, p.453

다음은 학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에 대한 부담요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 표 II - 17 >에서 알 수 있듯이 학부모들이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항목은 공교육비인 학교납입금과 사교육비인 각종과외비를가 88.6%로 학부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 외에는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II - 17 > 교육비 부담요인
(단위 : %)

구 분	학교납입금	각종과외비	교재비	유학비	잡부금.기타
전 국	40.4	48.2	2.2	7.7	1.5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관광지로 인식되어지는 제주지역 경제는 3차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편화되어져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취업자수나 부가가치 생산 비중에 있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제주지역경제에 있어서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별 취업구조면에서나 부가가치 생산구조면에서 전국의 변화 추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어 제주 지역경제는 1차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자원 인사와의 면담 결과 과외비와 유학경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제주도 학부모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學父母 負擔 教育費 推移

총교육비의 부담 主體는 국고와 학부형 그리고 사립인 경우는 수익자인 학부모형과 財團法人인데 전체적으로는 국고부담과 학부모부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고부담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私立學校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은 세금부담과 동시에 학교등록금 등 학교재원의 부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二重의 교육비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의 지출 추이 규모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추론하였다.

1) 교육비의 산출과정은 기존에 조사된 전국의 평균 국·공·사립과 전문대학·대학·대학교의 공·사교육비를 산술평균하고 설립별을 단일화하여 학교급별에 따른 1인당 평균 공·사교육비를 산출한 후,

2) 위의 방법에서 산출된 1인당 평균 공·사교육비를 해당 연도의 제주도 학교급별 학생수에 곱한 금액을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총 공·사교육비으로 추론하였으며,

3) 여기에서 추론된 공·사교육비의 총액을 합한 액수를 제주도 학부모들이 지출한 총교육경비로 하였으나, 여기에 기회교육경비는 제외되었다.

기회경비는 주어진 활동 때문에 대체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그 활동은 일정한 규모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 투자 효과를 측정할 때는 기회비용을 교육비에 포함시켜 총교육경비로 계상하지만 단순히 교육비의 경향만을 비교·분석할 때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켰다.

1. 공교육비

공교육비란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회계절차를 거쳐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지는 교육경비로서 세입부분은 지방교육 재정 부담금, 지방교육잉여금, 국고지원금, 재산 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육(기)성회비, 사 용료 및 수수료, 학생자율적경비, 학도호국단비 등이 있으며 세출부분으로는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시설비 등이 주로 이루고 있다.

1) 공교육비의 일반적 추이

교육비 부담의 한 주체인 정부로부터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공교육비의 규 모는 학교단계별 설립별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공립 인 경우는 국고 부담이 월등히 높지만 사립인 경우는 국고 부담보다는 학부 형 부담이 월등히 높다.

학교단계별로 학생 1인당 투자된 공교육비 내용을 < 표 III - 1 >에서 살 펴보면, 공교육비 부담 규모는 학교 단계와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다. 우선 학 교 단계별 재정 부담 상황을 살펴보면, 1968년도인 경우 초등학교는 6.4천원 인데 비하여 중학교는 12.3천원, 고등학교는 27.3천원, 대학은 71.3천원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는 약 2배 정도, 고등학교는 약 4배정도, 대학은 무려 12배 정도로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공교육비 부담 액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에는 초등학교가 1,412.0천원으로 220배 증가 한 반면, 중학교는 1,380.0천원으로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부담 액수가 감소하 였으며, 고등학교는 1,785.0천원으로 1.3배, 대학은 5,319.0천원으로 3.8배임을 나타내고 있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는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 등학교도 1.3배 정도로서 1968년의 27.3배에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의 감소 추 세이고, 대학 또한 12배에서 3.8배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비의 투자 규모로는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의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 표 III - 1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단위 : 천원)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1968	6.4	12.3	27.3	71.3
1977	57.9	80.7	145.7	638.0
1982	217.9	207.3	339.2	1389.2
1985	318.5	299.8	397.6	1,209.0
1990	566.3	699.1	786.9	1,998.8
1995	1,412.0	1,380.0	1,785.0	5,319.0 *

주 : *는 대학교만임. 대학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
 자료출처 : 통계청(1995), 한국의 발자취, pp.475 ~477에서 발췌.
 통계청(1997), 도표로 보는 통계, p.184에서 발췌.

학교급별 공교육비 증가 상황을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 표 III - 1 >를 준거로 하여 초등학교를 1로 하였을 때의 학교급별 공교육비 부담 규모를 지수로 나타내면 < 표 III - 2 >와 같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지수별 변화를 살펴보면, 1968년인 경우 중학교는 1.92배, 고등학교는 4.27배, 대학교는 11.14배의 증가 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1990년에는 중학교가 1.23배, 고등학교가 1.39배, 대학교는 3.53배의 증가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1995년에는 중학교는 0.98배, 고등학교는 1.26배, 대학교는 3.77배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보다 증가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표 III - 2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지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8	1	1.92	4.27	11.14
1977	1	1.39	2.52	11.02
1982	1	0.95	1.56	6.38
1985	1	0.94	1.25	3.80
1990	1	1.23	1.39	3.53
1995	1	0.98	1.26	3.77 *

주 : *는 대학교만임. 대학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

다음은 시기별에 따른 증가 현상을 < 표 III - 3 >에서 살펴보면, 시기별 학생 1인당 투자된 동급학교의 공교육비 증가 지수는 1968년을 1로하여 비교

하였을 때 초등학교인 경우는 1990년에 88.48배, 1995년에 230.63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1990년에 56.84배, 1995년에 112.20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고등학교는 1990년에 28.82배, 1995년에 65.38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학은 1990년에 28.03배, 1995년에 74.60배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 표 III - 3 > 시기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지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8	1	1	1	1
1977	9.05	6.56	5.34	8.95
1982	34.05	16.85	12.42	19.48
1985	49.77	24.37	14.56	15.29
1990	88.48	56.84	28.82	28.03
1995	220.63	112.20	65.38	74.60 *

주 : *는 대학교만임. 대학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교육비의 단순한 투자 액수로만 살펴보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즉 상위급학교에 대한 지출액수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증가지수면에서 살펴보면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그 지출 비율은 점차 감소 또는 둔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학교인 경우는 실제로 투자된 액수면에서도 초등학교 보다 오히려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 대한 증가 지수가 높은 이유는 의무교육의 확산으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 및 의무교육의 내적 충실로 인하여 국가가 투자하는 공교육비가 많음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제주도 공교육비

이상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제주도 학생수에 전국적인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평균 공교육비를 곱하여 추론한 결과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지출 추이의 규모는 < 표 III - 4 >에서 알 수 있듯이 1968년인 경우 초등학교는 3.68억원, 중학교는 1.77억원, 고등학교는 1.77억원, 대학교는 0.48억원으로 총공교육경비는 1968년에 7.7억원, 1977년 82.23억원, 1982년 393.38

억원, 1985년 513.14억원, 1990년 908.90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5년에는 초등학교는 603.88억원, 중학교는 398.49억원, 고등학교는 470.45억원, 대학교는 569.51억원으로 총공교육경비는 2042.33억원으로 1968년 대비 약 260배, 1985년 대비 약5배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 공교육비 추이는 전국의 평균치에서 추론하였기 때문에 학교급별, 시기별에 따른 증가 변화는 자연적으로 전국의 변화와 같게 나타날 것이므로 여기서 별도의 고찰은 생략하였다.

< 표 III - 4 > 제주도의 총공교육비(추이)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8	3.68	1.77	1.77	0.48
1977	42.70	2.39	27.26	9.88
1982	158.96	72.74	93.12	68.56
1985	195.69	113.25	119.99	84.21
1990	317.31	199.05	245.09	147.45
1995	603.88	398.49	470.45	569.51

위의 <표 III- 4 >에서 제시된 제주도의 공교육비 추이를 제주도의 공교육비를 밀도있게 분석한 김익선²³⁾의 연구결과 1인당 평균 공교육비를 해당연도의 학생수에 곱하여 제주도의 총공교육비를 산출한 결과 1977년인 경우 약 191억원, 1982년에 약 328억원, 1985년에 약 40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산출된 공교육비 추이와 비교한 결과 1985년인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약 513억원으로 약 107억원이 많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1985년도의 대학교 학생수 8,666명을 제외한 결과로서 그 당시 대학생의 평균 공교육비 약 120만원을 곱하여 산출하면 약 104억원 규모의 공교육비 지출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그 차액이 4억원 정도여서 총공교육비의 산출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77년과 1982년에는 선행연구가 불변가 기준이고 본 연구는 경상가

23)김익선(1986), “제주도 교육재정 탄력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51~52.

기준이기 때문에 이 둘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2. 사교육비

사교육비란 본인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공교육비를 제외한 경비 즉 본인이나 자녀가 교육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중 공교육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로서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학교지정용품비, 과외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기부금, 하숙비 등이 主를 이루고 있다.

사교육비의 조사 분석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며 공교육비와는 달리 연도별 시계열적 차원과 조사 대상 및 방법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의 연구 자료²⁴⁾를 근거로 하여 제주도의 사교육비의 지출 推移를 推論하였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면담 결과 사교육비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項目은 농촌인 경우는 유학 비용(하숙비, 자취 생활비, 교통비 등), 각종 과외비를, 도시인 경우는 각종 과외비, 教材費 순으로 들고 있다.

한편 김경식은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연구」에서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학원수는 1970년에 28개소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541개소로 19배 이상 늘어났으며, 학원이수자수도 동 기간에 48배 증가하였다. 그 증가율의 변화에 대해서 예능계가 104.5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²⁵⁾고 보고하고 있어 초등학교인 경우 학원 과외학습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공은배·천세영(1990),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신성인쇄상사), p.54.

25)김경식(1995), “국민학생의 학원과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12~13.

1) 사교육비의 일반적 경향

사교육비는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는 공교육비와는 달리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우리 나라의 학생 1인당 투자되는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 내용에 맞게 재작성한 학교급별, 연도별에 따른 변화 추세를 나타내면 < 표 III - 5 >와 같다.

< 표 III - 5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변화 추세 (단위 : 천원)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1968	6.7	15.5	24.6	55.3
1977	33.3	39.8	65.3	138.6
1982	129.6	163.3	219.0	588.4
1985	324.9	350.8	472.6	834.6
1990	518.3	733.7	746.4	1,284.4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1990), 한국의 교육비수준, p.54에서 재작성.

그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1968년인 경우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6.7천원에 비해 중학교는 15.5천원으로 약 2.5배, 고등학교는 24.6천원으로 약 4배, 대학은 55.3천원으로 약 8배의 사교육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경우는 초등학교가 지출한 사교육비 518.3천원에 비해 중학교 733.7천원, 고등학교 746.4천원으로 각각 약 1.4배의 사교육비가 지출되었고 대학인 경우는 1,284.4천원으로 약 2.5배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 표 III - 5 >를 준거로 하여 초등학교를 1로 하였을 때의 학교 급별 사교육비 부담 규모를 공·사립과 대학·전문대를 구분하지 않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경상가 기준으로 공·사·실업계열과 전문대와 대학을 통합·단일화하여 산술 평균한 후 사교육비의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를 지수로 나타내면 < 표 III - 6 >과 같다. 이를 비교하여 보면 중학교인 경우 1968년도에는 초등학교보다 2.30배의 사교육비가 투자되었으나 1977년에는 1.19배 1982년에는 1.26배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5년에는 1.08배에서 1990년에는 0.90배로 초등학교보다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인 경우는 1968년도에 초등학교의 3.66배의 사교육비가 투자되었으나 그 후 계속 증가지수가 둔화 내지는 하향 추세를 보여 1990년에는 0.92배로 초등학교보다 낮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 또한 1968년에 초등학교의 8.24배에 해당하는 사교육비가 투자되었으나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지수가 둔화 내지는 하향 추세를 보여 1990년에는 1.58배에 불과하다.

이를 요약하면 학교급별에 따른 사교육비의 증가지수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위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증가 폭이 점차 감소 내지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표 III - 6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지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8	1	2.30	3.66	8.24
1977	1	1.19	1.96	4.16
1982	1	1.26	1.69	4.54
1985	1	1.08	1.45	2.57
1990	1	0.90	0.92	1.58

다음은 시기별에 따른 증가 현상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 표 III - 7 >은 시기별 학생 1인당 투자된 사교육비 증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1968년을 1로 하여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는 1968년의 1에서 1977년에 4.96배, 1982년에 19.29배, 1985년에 48.36배, 1990년에 77.16배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 표 III - 7 > 시기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지수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8	1	1	1	1
1977	4.96	2.57	2.66	2.50
1982	19.29	10.55	8.89	10.63
1985	48.36	22.66	19.19	15.08
1990	77.16	47.41	35.45	23.21

중학교는 약 48배, 고등학교는 약 35배, 대학교는 약 2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상위급학교에 대한 사교육비의 지출보다는 하위급학교 특히 초등교육에 대한 사교육비의 투자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하게 투자된 액수로만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대한 투자보다 점차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상위급학교에 대한 투자액수 면에서는 엄청나게 불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 지수면에서 살펴보면 상위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투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제주도의 사교육비

이상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제주도 학생수에 전국적인 평균 사교육비를 곱하여 추론한 결과 제주도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규모는 < 표 III - 8 >와 같다.

1968년인 경우 초등학교는 3.86억원, 중학교는 2.23억원, 고등학교는 1.59억원, 대학교는 0.43억원으로 총사교육비는 8.11억원이며, 1977년에는 총사교육비가 50.68억원으로 1968년에 비해 10년 사이에 약 8배, 1982년에는 240.95억원, 1985년에는 546.96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0년에는 초등학교는 455.65억원, 중학교는 208.91억원, 고등학교는 232.49억원, 대학교는 124.10억원으로 총사교육비는 1,021.15억원으로 1968년 대비 약 130배에 달하고 있어 총사교육비는 국가의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III - 8 > 제주도의 총사교육비(추이) 규모
(단위.: 억원)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8	3.86	2.23	1.59	0.43
1977	24.55	11.76	12.22	2.15
1982	94.53	57.30	60.12	29.0
1985	199.63	132.39	142.62	72.32
1990	455.65	208.91	232.49	124.10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교육비의 지출액수면에서 살펴볼때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수의 많고 적음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인 경우 1977년부터는 학생수가 중학생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액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제주도의 총교육경비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총교육경비 규모를 제주도의 공·사교육비의 추론 결과에 의하여 나타내면 표< Ⅲ - 9 >와 같다. 제주도의 총교육경비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1977년과 1982년에는 공교육비가 사교육비를 앞지르고 있으나 1968년과 1985년 이후는 사교육경비가 공교육경비를 앞지르고 있다.

또한, 제주도 학부모들이 1년에 지출하는 총교육경비의 규모는 1968년에 15.81억원이던 것이 1977년에 132.91억원, 1982년에 634.33억원, 1985년에 1,060.10억원, 1990년에는 1,930.05억원으로 1977년 대비 약 14.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Ⅲ - 9 > 제주도의 총교육경비 (단위 : 억원)

연도	총교육경비	총공교육비	총사교육비
1968	15.81	7.7	8.11
1977	132.91	82.23	50.68
1982	634.33	393.38	240.95
1985	1,060.10	513.14	546.96
1990	1,930.05	908.90	1,021.15

IV. 연구 방법

교육비의 분석에 있어 사교육비의 분석은 長·短期의 조사에 의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나 과거의 基礎調査 資料가 없을 뿐 아니라 오늘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교육정책적 문제로 飛火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결과 응답자들의 반응에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어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공교육비 분석도 제주도의 교육재정 분석에 의해 가능하나 공·사교육비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물을 재분석 활용하였다.

1. 접근방법

① 본 연구에 적용된 기본적 접근방법은 이때까지 조사된 통계 자료 및 관련문헌의 분석에 의한 문헌종합검토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② 본 연구의 교육비 산출은 당해년도의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은 제주대학생에 한하였으며, 교육비는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③ 교육비 분야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교육투자 규모와 적정단위 교육비」, 「교육투자 규모와 수익률」, 「한국의 교육비 수준」과 통계청의 「한국의 발자취」,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④ 그외에 주된 통계 자료로는 제주도의 「제주통계연보」, 제주도교육위원회의 「제주교육통계연보」, 한국은행 제주지점의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분석」,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의 「감귤유통처리 실태 분석」 등을 참고하여 활용하였다.

2. 교육비 산출 방식

교육비 지출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시와 농촌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도시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越等히 높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에 의하여 제주도 지역의 교육비 지출 추이 규모를 추론한다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 표 IV-1 >에서 알 수 있듯이 1977년 이전에는 농가보다 도시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약간 많고, 이후에는 오히려 도시가구보다 농가에서의 교육비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 추이 규모를 산출하는데는 과거의 기초 통계 자료의 미비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전국적인 1인당 평균 교육비를 제주도 교육비 산출에 적용하였다.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학부모부담 교육비} = \text{전국평균 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 \times \text{제주도 학교급별학생수}$$

< 표 IV - 1 > 교육비 지출율 (단위 : 원, %)

연도	도 시 가 구			농 가		
	연간소비 지 출	연간교육비	교육비 비 율	연간소비 지 출	연 간 교육비	교육비 비 율
1970	311,880	22,320	7.2	207,766	14,185	6.9
1977	1,002,960	67,200	6.7	976,407	79,252	8.1
1982	2,987,724	201,012	6.7	3,257,836	345,141	10.6
1985	3,804,300	279,960	7.4	4,690,854	555,338	11.8
1990	8,227,944	664,704	8.1	8,227,213	862,436	10.5
1995	15,190,680	1,484,004	9.8	14,781,890	1,553,337	10.5

자료출처: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남형문화주식회사, p.227에서 발췌.

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두 변인간의 상호관련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1) 상관관계 분석의 감귤 성장도 및 교육비의 지수는 감귤소득 금액과 교육비 추론 금액을 숫자 단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백억원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를 반올림한 숫자를 지수로 하였다.

2) 자료 및 통계처리는 SPSS/PC에 의해 전산 처리하였으며 감귤산업 소득액과 교육비 지출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비교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은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p = < .05$ 와 $p = < .01$ 로 제한하였다.



V. 教育費 支出과 柑橘産業 所得과의 關係

본 장에서는 제Ⅲ장에서 고찰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추이에서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감귤산업 소득과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의 지출과의 관계를 감귤 소득으로만 교육비를 충당하였을 경우에 감귤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 교육비와 감귤소득'에서는 백분율과 그래프를 통하여 '2. 교육비 지출과 감귤소득과의 관계'에서는 두 변인간의 상호관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비와 감귤소득

앞에서 고찰한 < 표 Ⅱ - 7 >, < 표 Ⅲ - 4 >, < 표 Ⅲ - 7 >, < 표 Ⅲ - 9 >를 근거로 하여 감귤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면 < 표 V - 1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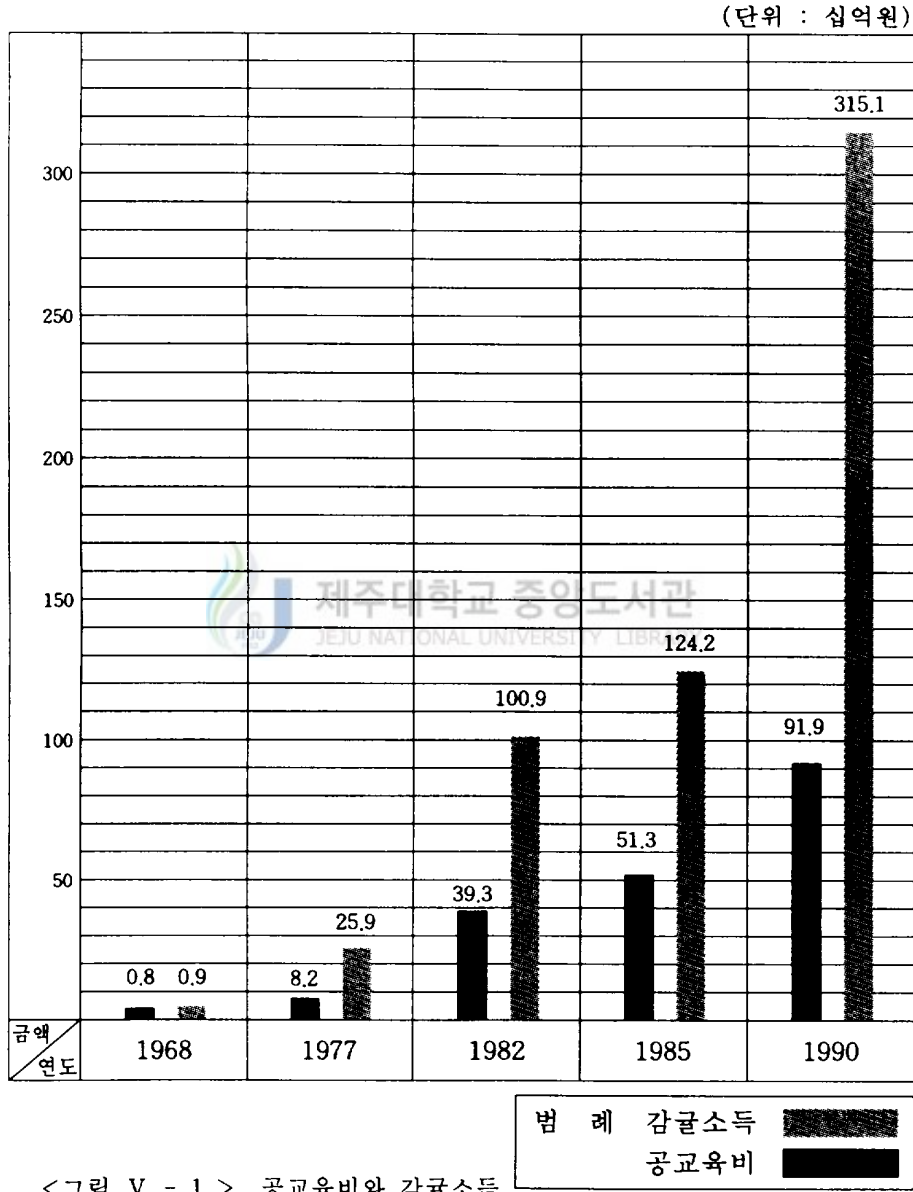
< 표 V - 1 > 교육비와 감귤소득 (단위 : 십억원, %)

연도	총공교육비(A)	총사교육비(B)	총교육경비(C)	감귤소득(D)
1968	0.77 (90.59)	0.81 (95.29)	1.58 (185.88)	0.85
1977	8.22 (31.77)	5.07 (19.60)	13.29 (51.37)	25.87
1982	39.34 (38.99)	24.09 (23.88)	63.43 (62.86)	100.90
1985	51.31 (41.32)	54.69 (44.04)	106.01 (85.36)	124.19
1990	90.89 (28.88)	102.12 (32.41)	193.01 (61.25)	315.10
1995	204.23 (42.55)	-	-	480.00

< 표 V - 1 >에서 교육비와 감귤소득 관계를 살펴보면, 공·사교육비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총교육경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감귤소득 또한 증가폭의 차이는 있으나 계속적인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 총공교육비와 감귤소득

< 표 V - 1 >에서 총공교육비(A)와 감귤소득(D)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귤소득 중 총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8년에는 약 9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1977년부터는 30%에서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의 대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 그림 V -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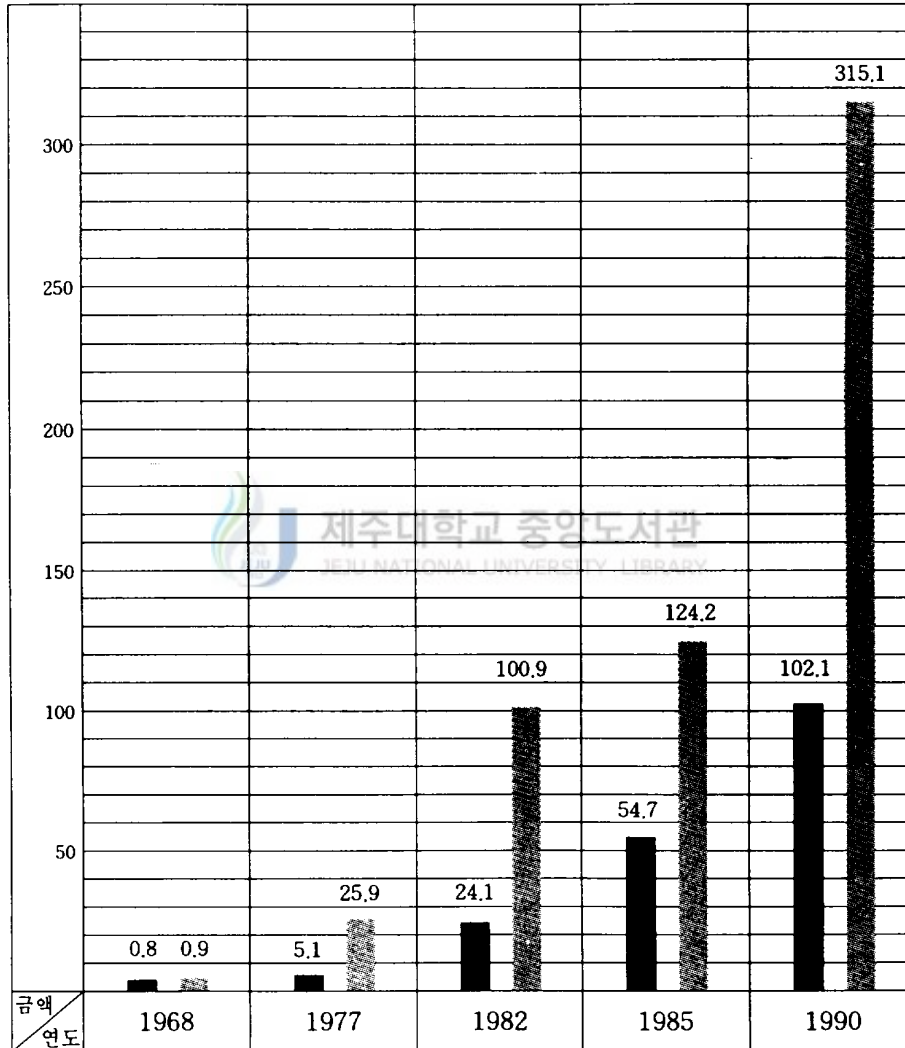


<그림 V - 1 > 공교육비와 감귤소득

2) 총사교육비와 감귤소득

< 표 V - 1 >에서 총사교육비(B)와 감귤소득(D)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귤소득 중 총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8년에는 약 9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1977년에는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1982년에 24%, 1985년에 44%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3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의 대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 그림 V - 2 > 과 같다.

(단위 : 십억원)



<그림 V - 2 > 사교육비와 감귤소득

범례
 감귤소득 (하atched)
 사교육비 (solid black)

3) 총교육경비와 감귤소득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총교육경비와 감귤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1968년에는 총공·사교육비 모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총교육경비는 감귤소득의 185%로 감귤소득보다 85% 정도 더 많은 액수가 교육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이전인 1968년에는 감귤산업 소득이 교육비의 지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8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제주도 총교육경비가 감귤소득의 50~6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985년도에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감귤소득의 증가 지수를 비교하여 볼 때 1982년에 비해 1985년에는 겨우 1.2배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그 해의 감귤 조수익이 낮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비와 감귤소득의 증가 모습을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 표 V - 1 >를 준거하여 1968년을 1로 기준하였을 때의 시기별 교육비와 감귤소득의 증가지수를 나타내면 < 표 V - 2 >와 같다.

< 표 V - 2 > 시기별 교육비와 감귤소득의 증가지수

연도	총공교육비(A)	총사교육비(B)	총교육경비(C)	감귤소득(D)
1968	1	1	1	1
1977	10.68	6.26	8.41	30.44
1982	51.09	29.74	40.15	118.71
1985	66.64	67.52	60.09	146.11
1990	118.04	126.07	122.16	370.71
1995	265.23	-	-	56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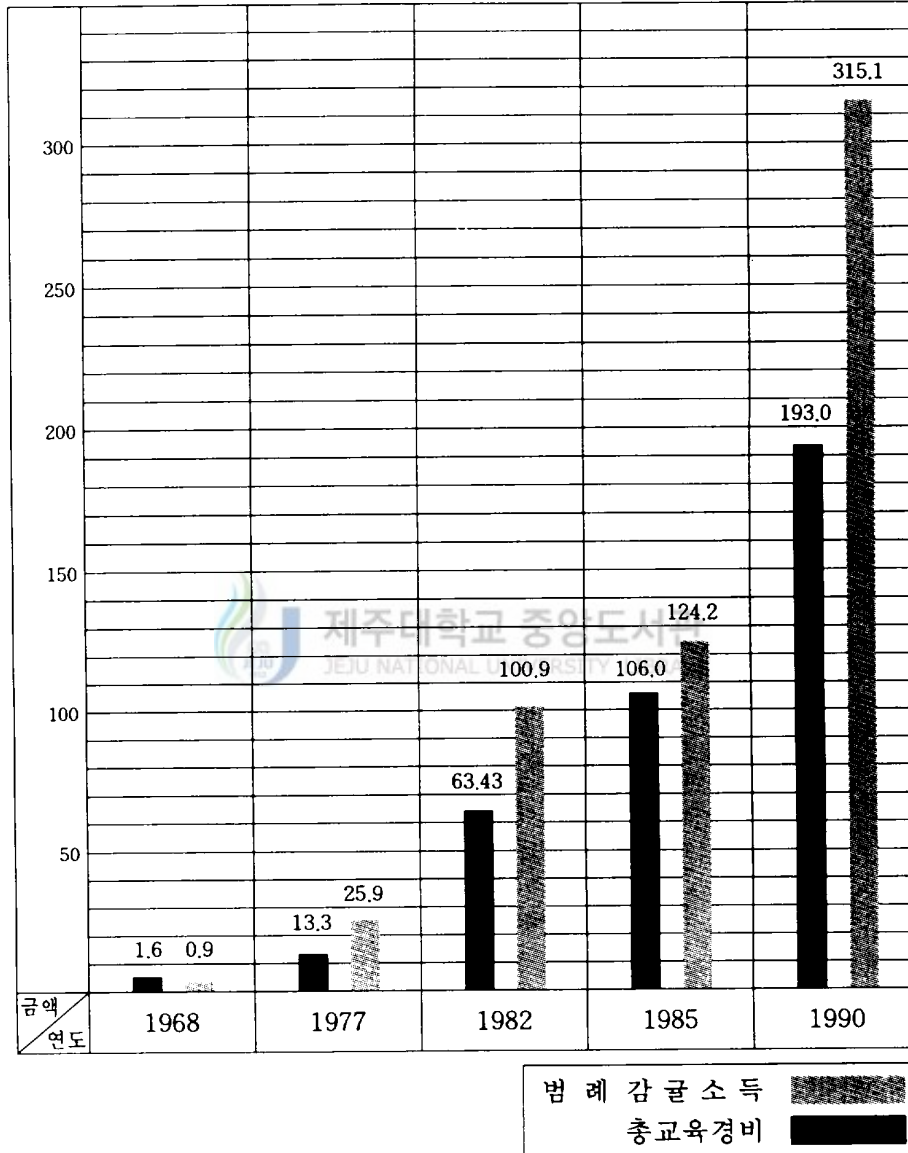
< 표 V - 2 >에서 총공교육비와 총사교육비의 시기별 증가 현상을 지수상으로 살펴보면, 총공교육비의 증가는 1977년에 약 11배, 1982년에 67배 증가하였으며, 총사교육비는 同년에 약6배와 약 30배의 증가에 그쳐 1982년까지는 공교육비에 대한 투자 및 지출이 사교육비 지출을 능가하고 있는 반면, 총공·사교육비의 증가 비가 1985년에 67배:68배, 1990년에 118배:126배로 점차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교육비 중에는 학부모부담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학부모부담 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교육비와 감귤소득과의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 그림 V - 3 >과 같다.

(단위 : 십억원)



<그림 V - 3 > 총교육경비와 감귤소득

이를 전국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평균 공·사교육비인 < 표 III - 1 >과 < 표 III - 5 >를 준거로 하여 학생 1인당 평균 공·사교육비의 증가를 지수로 환산하여 나타내면 < 표 V - 3 >과 같다.

< 표 V - 3 > 전국 평균 교육비 증가 비교

(단위 : 천원)

연도	공교육비 (증가지수)	사교육비 (증가지수)
1968	117.3 (1)	102.1 (1)
1977	922.3 (7.9)	277.0 (2.7)
1982	2,153.6 (18.4)	1,100.3 (10.8)
1985	2,224.9 (19.0)	1,982.9 (19.4)
1990	4,051.1 (34.5)	3,282.8 (32.2)

*공교육비의 금액은 학교급별 전국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를 합산한 것임.

< 표 V - 2 >에서 분석한 내용을 < 표 V - 3 >과 비교·분석하면 전국적인 현상은 공교육비가 사교육비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으나 제주인 경우는 1985년과 1990년에 사교육비의 증가가 앞서고 있음은 특이한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사교육비가 전체적으로 뚜렷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2년과 1985년 사이의 공교육비 증가는 평균 증가비율에 못미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공교육비가 사교육비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는데 반하여 제주도인 경우는 1982년까지는 공교육비가 사교육비의 증가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2. 교육비 지출과 감괄소득과의 관계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얻어진 자료 처리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들이 부담한 교육비와 감괄소득과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교육비 지출과 감괄소득과의 관계

공교육비의 분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공교육비와 공교육비의 총액 순으로 분석한 결과 공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r=.977$,

중학교는 $r=.975$, 고등학교는 $r=.980$, 대학교는 $r=.896$, 총공교육비는 $r=.961$ 로서 매우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대학교인 경우만 9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는 전부 99%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2) 사교육비 지출과 감귤소득과의 관계

사교육비의 분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사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총액 순으로 분석한 결과 공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r=.989$, 중학교는 $r=.962$, 고등학교는 $r=.985$, 대학교는 $r=.968$, 총사교육비는 $r=.979$ 로서 매우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중학교인 경우만 9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는 전부 99%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3) 총교육비 지출과 감귤소득과의 관계

제주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총공교육비와 총사교육비를 합산한 총교육경비와 감귤산업의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V - 4 > 감귤산업의 성장도와 총교육비와의 상관관계

연도	성장도	사교육비	n	r	유의도
1968	0.09	0.16			
1977	2.59	1.33			
1982	10.09	6.34	5	.988	**p<.01
1985	12.42	10.60			
1990	31.51	19.30			

< 표 V - 4 >는 감귤산업의 성장도가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모든 교육비 지출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988$ 로서 매우 높은 상관이 있으며 99%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감귤소득이 가계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가계소득의 일부가 교육비에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감귤산업의 성장은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지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VI. 要約 및 結論

1. 要約

제주도는 지역이 협소하고 화산토질이란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1차 산업인 농·어업에 주로 종사하였으며 경작 규모의 영세성과 栽培作H의 한정성 때문에 경제성보다는 자급자족을 위한 영농을 주로 하여, 농촌의 경제는 자연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 자녀들 교육시키기를 갈망하였으며 교육비 충당은 주로 밭이나 가축 등을 팔아 마련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교육비 마련에 안간힘을 썼다.

이런 상황속에서 1960년대 들어서면서 감귤나무 재배의 기후적 특성과 그 수익성이 인정받게 되면서부터 제주 농업의 작부체계가 바뀌게 되었고, 때를 맞추어 국가적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감귤산업은 도민들 사이에 각광을 받게 되어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감귤산업에 의한 소득은 타 작물의 소득을 훨씬 능가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교육욕구 충족의 걸림돌이 되었던 교육비 충당에 한 몫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감귤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 ‘대학나무’ 라고 까지 불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감귤소득이 교육비 충당에 얼마만한 공헌을 하였으며, 교육비 지출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때까지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감귤산업의 발달과정을 통하여 제주지역 산업 중에서 감귤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한 후, 첫째, 제주도민이 지출하는 교육비는 얼마 정도인가? 둘째, 감귤산업의 소득과 교육비 지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문제를 설정하여 감귤산업의 성장과 제주도의 공·사교육비 조사·분석을 통해 감귤산업이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

으로 검증·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유형의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시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감귤소득이 자녀들의 교육비에 투자된 관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감귤산업의 성장에 따른 농촌 경제의 성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 그리고 경제 외적인 측면은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일반 다른 산업 혹은 1차산업 중 어느 특수 산업과 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정도의 유추 해석은 가능할지 모르나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점있다.

또한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총교육비 산출도 전국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주도의 실질적인 총교육비 규모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며 단지 학부모들이 부담한 교육비의 추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 주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사교육비의 분석을 잘못하였을 경우 교육정책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반응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공·사교육비의 일관성있는 분석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분석된 통계 자료와 선행연구물을 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제 해결에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참고문헌을 재분석하는 문헌종합검토법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금액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교육비 산출 대상은 당해년도의 제주도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제한하였으며, 대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에 한하였다.

문헌 분석에 있어서 교육비 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제주도교육위원회의 통계자료를, 경제와 산업 분야는 제주도, 한국은행 제주지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의 통계자료를 주로 참고·활용하였다.

교육비 산출은 전국적인 1인당 평균 교육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산출하였다.

1) 기존에 조사된 전국의 평균 국·공·사립과 전문대학·대학·대학교의 공·사교육비를 산술평균하고 설립별을 단일화하여 학교급별에 따른 1인당 평균 공·사교육비를 산출한 후, 이를 해당 연도의 제주도 학교급별 학생수에 곱한 금액을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사교육비의 총액으로 하였다.

2)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총교육경비는 공·사교육비의 총액을 합한 액수로 하였으며, 여기서 기회교육경비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자료 및 통계처리는 SPSS/PC에 의해 전산 처리하였으며 감귤산업 소득액과 교육비 지출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비교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은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p = < .05$ 와 $p = < .01$ 로 제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부모 부담 교육비 분석

(1) 학교급별 공교육비 증가는 초등학교 대비 대학교를 지수별로 살펴볼때 1968년에 1 : 11.14이던 것이 1995년에는 1 : 3.77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기별 대비에서도 1995년에 초등학교가 220.63인 반면 대학교가 74.60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제주도의 공교육비 규모는 1968년에 7.7억원, 1977년에 82.23억원, 1982년에 393.38억원, 1985년에 513.14억원, 1990년에 908.90억원, 1995년에 2,003.38억원에 달하고 있다.

(3) 학교급별 사교육비 증가는 초등학교 대비 대학교를 지수별로 살펴볼때 1968년에 1:8.24이던 것이 1990년에는 1:1.58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기별 대비에서도 1990년에 초등학교가 77.16인 반면 대학교가 23.21로 나타나고 있다.

(4) 제주도의 사교육비 규모는 1968년에 18.11억원, 1977년에 50.68억원, 1982년에 240.95억원, 1985년에 546.96억원, 1990년에 1,021.15억원에 달하고 있다.

(5) 제주도의 총교육비 규모는 1968년에 15.81억원, 1977년에 132.91억원,

1982년에 634.33억원, 1985년에 1,060.1억원, 1990년에 1,930.05억원에 달하고 있다.

2) 감귤산업의 성장도 분석

(1) 감귤산업의 성장 관계를 1968년을 기준으로 1995년과 대비하여 보면, 재배 농가는 442호에서 26,589호로 약 60배, 재배 면적상으로는 1.471ha에서 21.605ha로 약 14배 정도, 생산량은 3.349톤에서 614.770톤으로 약 180배 정도, 조수익은 8.51억원에서 4.334억원으로 약 500배 이상 증가하였다.

(2) 지역산업에서의 위치는 지역총생산 구조면에서 감귤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1971년 4.5%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내의 연평균치도 13.9%로 지역총생산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3) 감귤의 청과물 생산면에서 우리 나라 제1의 청과물인 사과와 비교하면 1970년에 사과의 30%에 불과하던 것이 1992년에는 1.1%, 1993년에는 0.02% 정도 사과보다 앞서고 있다.

3) 교육비 지출과 감귤산업의 소득과의 관계 분석

(1) 초·중·고·대학 및 제주도의 총공교육비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부 99%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유일하게 대학인 경우만 9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2) 초·중·고·대학 및 제주도의 총사교육비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부 99%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유일하게 중학교인 경우만 95%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3) 제주도의 총교육비와의 상호관계에서는 $r=0.988$ 로서 매우 높은 상관이 있으며 99%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2. 結論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감귤산업의 성장도는 1968년을 기준으로 1995년과 대비하여 보면, 재배농가는 약 60배, 재배 면적은 약 14배, 생산량은 약 180배, 조수익은 약 5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역총생산 구조면에서 조수익이 1971년에 4.5%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인 경우 3,151억원으로 지역내 총생산액의 18.2%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 기간내의 연평균치도 13.9%로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1차산업 생산액의 52.4%에 해당한다.

이는 단일 품목의 산업 생산액으로는 지역경제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내 총생산 즉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감귤과 관련된 製造 및 流通業까지의 생산액을 합한다면 감귤산업은 제주 경제와 산업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총교육경비는 1985년에 1,060.1억원, 1990년에 1,930.0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인 경우 지역내 총생산액의 약 11%, 감귤조수익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타·시도에 진학하는 학생 및 재수생까지 포함하여 교육비를 추론한다면 감귤 조수익을 훨씬 넘는 액수가 교육비에 투자되고 있어 제주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감귤산업의 소득과 교육비 지출 사이에는 상호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대학의 공교육비 지출 부분과, 중학교의 사교육비 지출 부분만 95%의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는 전부 99%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감귤산업 소득이 교육비 지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金南淳(1992), 「教育財政과 教育費 研究」, 서울:교육과학사.
- 김영철·공은배편(1988), 「教育經濟와 財政」, 서울:교학사.
- 김종철(1982), 「교육재정」, 서울:교육과학사.
- 이군현(1992), 「교육행정학」, 대전:과학과 예술.
- 尹正一(1989), 「韓國의 教育財政」, 서울:민문고.
- _____ (1992), 「교육재정학」, 서울:세영사.
- 이완정(1996), 「행동연구분석기법」, 서울:교육과학사.
- 최희선·김영철(1983), 「교육행정·교육재정」, 서울:갑을출판사.
- 홍기용외(1997), 「지역경제론연습」, 서울:박영사.
-
- 대한교육연합회·새한신문사(1980), 「한국교육연감」, 서울:동아서적주식회사.
-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 제주도교육청(1970~1996), 「제주교육 통계연보」, 제주:제주도인쇄협동조합.
- 한국교육행정학회(1995), 「교육재정론」, 서울:도서출판하우.
-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통계연보」, 제주:제주도인쇄협동조합(1970 ~1996).
- 통계청(1997), 「지역내 총생산」, 서울:강문인쇄사.
- _____ (1995), 「한국의 발자취」, 서울:문성인쇄주식회사.
- _____ (1996),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남형문화주식회사.
- _____ (1996),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서울:강문인쇄사.
-
- 한국교육행정학회(1995), 「교육재정론」, 서울:도서출판하우.
- 한라일보사(1992), 「한라연감」, 제주:경신인쇄사.
-
- 강지용(1990), “제주도 농업의 구조와 생산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高承漢(1986), “農業의 商業化가 農民의 社會經濟的 地位變動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청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공은배외(1985), “教育投資 規模와 수익율”,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0), “한국의 교육비 수준”,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식(1995), “국민학생의 학원과외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남진(1995), “경제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철외(1982), “教育投資 規模와 適正單位 教育費”,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金益善(1986), “濟州道 教育財政 彈力度 調査 分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金宗昊(1988), “濟州地域 經濟의 現況과 課題”,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金俊希(1983),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진(1994), “국민학교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염상훈(1990), “교육재정의 실태와 擴充方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吳碩珉(1986), “제주도 감귤재배지의 계층 구성 및 임노동의 성격”, 석사학위 청구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영봉(1976), “지역산업 구조의 성격과 변화,” 「제주리뷰」, 제 2호,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 이귀영(1987), “私教育費의 經濟的 效果에 關한 一研究”, 박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李靜淑(1988), “국민학교 사교육비의 實態調査에 關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李在玄(1993), “私教育費의 實態分析”,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한정관(1995), “제주지역 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허인옥(1976), “제주도감귤업의 성장과 구조적 특질에 관한 고찰”, 「논문집」, 제 6집, 제주교육대학.
- 현공남(1990), “ 제주지역 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방향”, 「지역발전연구, 논문집」, 2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1995), “ '95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 한국은행제주지점(1991), “제주 경제의 산업구조 분석”.

<Abstract>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a shift of educational expenses
and an income from the citrus on Cheju island²⁶⁾***

Kim, Yong-Hee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Owan C. Le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ffer some basic data to be required for this kind of research. First of all, I have looked through the growth of the citrus industry on Cheju island and the shift of educational expenses which the parents of Cheju students pay, and then I hav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both elements closely in order to check out how much the profits from the citrus industry have had influence on paying their children's educational expense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referring to a lot of records including necessary books,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both elements mentioned above, when each is counted invariable.

The result of a series of analyses is as follows:

(1) The educational expenses the parents of students pay tend to be invested in helping elementary education more than any higher one about the shift of the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spent according to each level of education for long from 1968 through 1995: the money had been used more for the other high levels of education than for the elementary one looking into an amount of investment, but the increasing rate of spending the money for elementary schools has

26)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been remarkable during the same period.

(2) Looking over the growth of the citrus industry as of the year of 1995 in comparison with that of 1968, we can make sure that the total number, the total area and the total profits of tangerine orchards has increased about 60 times more, about 180 times more, and about 500 times more each. Moreover, referring to the total product structure of Cheju island, it is clear that the profit rate has changed from 4.5% (in 1971) to 18.2% (in 1990). The average value per year of such rate over the same period is 13.9%, so the product of the citrus industry amounts to about 14% out of the total product of Cheju island and to 52.4% out of the primary industry products of the island; accordingly, this industry as a single item is considered relatively important. Furthermore, if the other related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industry are added to this industry, then these all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economy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Cheju island.

(3) The educational expenses the parents of students on Cheju island paid in 1990

is assumed to be 193,005,000,000 won. It amounts to about 11% out of the total product of Cheju island and to about 61% out of the profits of citrus production. Therefore, if the educational expenses the Cheju parents of the students in the mainland pay is added to this money, it is concluded that the more money than the profits of citrus product has been paid for the educational expenses.

(4)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yment of educational expenses and the profit of the citrus industry by a method of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y both are very correlative: the public educational expenses for colleges (including university) and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for middle schools are 95% respectively, and the other educational expenses are all 99%. In short, both of them are very correlative.

부 록



1. 감귤생산량 및 유통처리 실적

(단위:ha, 호, M/T, 백만원)

연도별	면적	농가수	품종별생산량				조수익
			소계	조생	중만생	잡감	
1953	16.8	-	6.3	-	-	-	-
1954	18.1	-	86.7	-	-	-	1.4
1955	18.4	-	171.6	-	-	-	2.7
1956	21.0	-	108.8	-	-	-	1.7
1957	50.1	-	207.0	-	-	-	3.3
1958	57.3	-	266.7	-	-	-	4.3
1959	80.3	-	118.0	-	-	-	18.9
1960	93.0	-	191.0	-	-	-	30.6
1961	230.0	47	388.0	-	-	-	62.1
1962	318.0	46	831.0	-	-	-	133.0
1963	380.0	41	474.0	-	-	-	75.8
1964	407.0	44	1,203.0	-	-	-	192.5
1965	551.0	116	1,083.0	-	-	-	173.3
1966	659.0	132	1,722.0	-	-	-	275.5
1967	995.2	173	1,621.0	-	-	-	259.4
1968	1,471.0	442	3,549.0	-	-	-	851.0
1969	3,166.0	577	2,643.0	-	-	-	634.0
1970	5,011.6	-	4,972.0	-	-	-	953.0
1971	5,840.3	1,816	5,972.0	-	-	-	1,433.0
1972	6,955.0	3,905	11,441.0	-	-	-	2,754.0
1973	8,409.0	5,686	26,231.0	-	-	-	6,295.0
1974	9,923.0	5,990	30,618.0	-	-	-	7,348.0
1975	10,930.4	8,030	81,105.0	28,972	50,281	2,032	14,599.0
1976	11,566.0	8,420	50,432.0	19,887	29,603	942	16,138.0
1977	11,709.9	9,070	115,500.0	83,830	75,995	675	25,870.0
1978	12,089.0	9,260	125,950.0	42,620	82,630	720	31,907.0

(단위:ha, 호, M/T, 백만원)

년도별	면적	농가수	품종별 생산량				조수익
			소계	조생	중만생	잡감	
1979	12,909.0	10,450	172,150.0	56,900	113,900	1,350	55,088.0
1980	14,095.0	19,996	187,470.0	60,060	126,140	1,270	54,500.0
1981	14,764.0	20,605	247,800.0	80,000	166,180	1,600	78,397.0
1982	15,500.0	20,645	323,420.0	93,767	227,444	2,209	100,904.0
1983	16,975.0	23,182	345,900.0	126,052	217,371	2,477	74,043.0
1984	16,975.0	23,182	261,000.0	72,239	186,679	2,082	115,582.0
1985	16,969.0	23,332	394,300.0	136,800	253,600	3,900	124,189.0
1986	16,958.0	23,685	333,100.0	126,879	201,581	4,640	141,598.0
1987	17,656.0	24,632	464,391.0	180,909	277,070	6,412	166,818.0
1988	17,829.0	24,892	412,660.0	177,137	228,419	7,104	210,579.0
1989	19,335.0	25,541	746,400.0	369,060	371,410	5,930	202,000.0
1990	19,414.0	25,616	492,700.0	256,800	231,000	4,900	315,100.0
1991	20,214.0	25,818	556,350.0	307,590	242,890	5,870	425,100.0
1992	21,727.0	29,541	718,700.0	414,184	297,754	6,762	262,330.0
1993	21,479.0	26,571	619,000.0	412,397	201,370	5,233	394,820.0
1994	21,448.0	26,596	548,945.0	378,346	165,794	4,805	552,120.0
1995	21,605.0	26,589	614,770.0	450,130	158,460	6,180	480,000.0
1996	25,802.0	36,055	479,980.0	399,787	74,586	5,607	607,932.0

자료원 : '97 농수산 기본현황, 제주도, 선진인쇄사, 1997.

2. 제주도내 재학생수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8	57,513	14,404	6,471	769
1969	61,094	16,866	7,166	770
1970	64,201	18,078	8,069	593
1971	66,392	19,505	9,285	625
1972	67,668	21,127	10,658	701
1973	68,983	23,322	11,813	1207
1974	70,379	25,234	13,415	1196
1975	72,180	26,549	14,910	1141
1976	72,894	28,276	16,823	1273
1977	73,741	29,570	18,712	1549
1978	75,257	30,915	20,511	1618
1979	75,795	32,143	22,286	2789
1980	76,179	33,128	24,264	3405
1981	75,233	34,731	25,999	4,297
1982	72,952	35,090	27,453	4,935
1983	69,410	36,336	28,318	-
1984	65,453	37,286	29,518	9,124
1985	61,441	37,744	30,179	8,666
1986	59,635	36,787	31,276	6,909
1987	57,592	35,034	32,156	6,899
1988	57,077	32,725	32,725	6,470
1989	56,876	30,620	32,252	9,407
1990	56,033	28,473	31,146	9,662
1991	54,822	27,240	30,076	9,707
1992	51,947	27,900	28,710	9,788
1993	49,186	28,411	27,149	9,909
1994	45,743	29,379	25,840	10,266
1995	42,768	28,876	26,356	10,707
1996	41,442	27,411	26,799	11,156